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 | | | |
|------|--------------------|------|-----|
| 생산기관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 | |
| 생산년도 | 2001 | 보존기간 | 준영구 |
| 관리번호 | DA1169247 | | |

1550085-99999999-2001-000026-002

준영구

세계기록유산 (2-2)

2001 - 2001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서류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원본대조필

국가기록원 보존문서(문본 광다스리, 마이크로필름)
원본으로부터 복사되었음을 증명함.

국가기록원장



※ 2001. 6. 29 12:35
18:15



문화재청
민족유산 알리고 가치 높이기

報道資料

(2001. 6. 29)

| | |
|-------|--------------|
| 담당과 | 문화재기획과 |
| 담당자 | 김수미 사무관 |
| 전화번호 | 042-481-4724 |
| F A X | 042-481-4685 |

「문화재청(www.ocp.go.kr) 알림마당, 문화관광부(www.mct.go.kr) 문화관광부소식란」에 동시 게재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록 권고
- 6. 29일, 청주 제5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에서 최종 의결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th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2001.6.27~6.29)하고 「승정원 일기」(국보 제303호)와 「직지심체요절」 등 우리나라 기록유산 2점 등 11개국 21점의 각 국 기록유산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을 최종 권고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세계기록유산 등록권고를 받은 기록유산은 앞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최종 서명 절차가 남아있으나, 동 사무총장의 서명은 요식행위로서 이번 회의 의결이 사실상의 등록을 확정짓는 권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97년에 등록된 「훈민정음」(국보제70호),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호)에 이어 모두 4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어 문화국가로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사회에서 널리 공인 받게 되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도서관 및 고문서 보관처 등에 보관된 위험에 처한 인류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신기술 응용을 통하여 값진 소장문서를 보존·공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서 19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제목록작성사업이다. 이러한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통해 우리 인쇄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받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록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유네스코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비서실인 승정원의 일기로 1623년부터 1910년까지 288년간의 역대 국왕들의 하루 일과, 지시, 명령, 각 부처의 보고, 각종 국정회의 및 상소 등을 모두 전제한 연대기 기록이다. 「조선왕조실록」이 국왕 사후 사관들에 의해 편집된 2차 자료라면, 「승정원 일기」는 당시의 정치·경제·국방·사회·문화 등에 대한 생생한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1차 사료이다. 288년간 매일의 날씨 정보를 기록 수록한 천문 기상학 자료이외에 국문학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는 등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직지심체요절」은 고려시대의 승려인 백운화상이 역대 불조(佛祖)들의 법화(法話)를 요약·편찬한 고서적으로서 1377년 청주 교외에 있던 흥덕사에서 인쇄되어 현재는 그 하권(下卷)이 유일하게 남아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신청된 모든 기록유산을 심의한다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방침에 따라 지난 '98년 신청한 「직지심체요절」도 심의되었으며, 소장국이 프랑스라는 점에서 그 등록 전망이 불투명하였으나 세계기록유산등록은 소장국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유산 자체의 가치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양에서의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구텐베르그의 성경」(1455년경)과 함께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도 등록 권고된 것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승정원일기」 원본은 보존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영인본 승정원일기」(국사편찬위원회 1961~1977 간행)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철종2년(1851)부터 순종융희4년

(1910)까지의 일기 필사본은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국사 편찬위원회에서는 영인본 전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직지심체요절은 관리 및 문서 디지털화에 관해서는 추후 프랑스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총 23개국 42건이 신청되어 「슈베르트 전집」(오스트리아), 「구텐베르크의 성경」(독일), 「페테르스부르크 성 역사전집」(러시아) 등 11개국 21건이 등록 권고되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문화재 개요

- 지정별 : 국보 제303호 ('99.4.9 지정)
- 수 량 : 3,243책
- 소장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 내 용
 - 16세기~20세기초까지의 조선시대 통치기록 원본.
 - 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비서실인 승정원의 일기로 1623년부터 1910년까지 288년간의 역대 국왕들의 하루 일과, 지시, 명령, 각 부처의 보고, 각종 국정회의 및 상소 등을 모두 전제한 연대기 기록

□ 문화재적 가치

- 세계 최대 연대 기록물: 총 3,243책, 글자수 2억4천250만자
 - * 참고 : 「중국 25사」 3,386책, 약 4,000만자
 - 「조선왕조실록」 888책, 5,400만자
- 조선시대 1차 사료
 - 「조선왕조실록」이 국왕 사후 사관들에 의해 편집된 2차 자료라면 「승정원 일기」는 당시의 정치·경제·국방·사회·문화 등에 대한 생생한 역사를 그대로 기록
- 국문학적 가치
 - 17세기부터 20세기초까지 일기로 300년간의 국문학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 천문기상학 자료
 - 288년간 매일의 날씨 정보 기록 수록 「조선왕조실록」의 날자는 60갑자로만 표기되어 있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는 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나 「승정원 일기」는 60갑자와 수시력역법의 일자를 동시에 표기하고 있어 역사의 기초자료가 됨.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 (承政院日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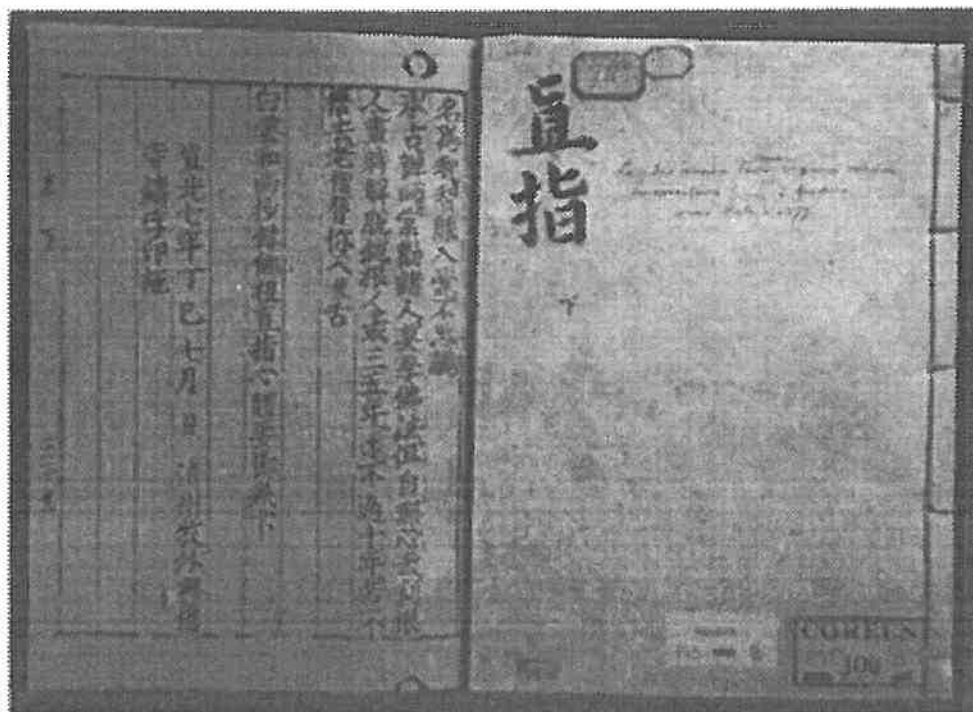
직지심체요절 (直指心體要節)

□ 개 요

- 직지심체요절의 원제목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고려 공민왕 21년(1372) 백운화상이 저술하였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3년만에 제자들에게 의해 금속활자로 간행됨.
- 직지심체요절은 중국 송(宋)나라때 나온 전등록(全燈錄)에서 역대 불조(佛祖)들의 법화(法話)를 요약한 것으로 1377년(고려 우왕3년) 청주 교외에 있던 흥덕사(興德寺) 주자시(鑄字施)에서 인쇄한 하(下)권(상권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음.
- 이 책은 1972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도서의 해”에 출판되어 독일의 구텐베르크 보다 78년이나 앞선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

□ 프랑스 유출경위

- 직지심체요절이 해외로 유출된 경위는 조선시대 고종때 주한 블란서대리공사로 서울에서 근무한바 있는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가 수집해간 장서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그후 골동품수집가였던 앙리베베르(Henry Vever)에게 넘어갔으며 그가 1950년에 사망하자 유언에 따라 프랑스국립도서관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 목 적

- 도서관 등에 보관된 위험에 처한 인류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신기술 응용을 통하여 값진 소장문서를 보존·공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목록작성사업(1992년 창설)

□ 주 관

- 유네스코 일반정보사업국 산하 국제자문위원회
 -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는 사서, 법률전문가, 교육학자, 저술가 등 14명으로 구성

□ 신청자격

- 세계기록유산은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정부기관, 소유자, 관리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 단체도 자유롭게 등록신청이 가능함.
-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등록처럼 국가간 협약사업이 아니라 유네스코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등록절차

- 세계기록유산 등록신청서 유네스코에 제출
- 유네스코 일반정보사업국(PGI)에서 신청서 사전 심사
-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세계기록유산 등록여부 결정(격년 개최)

□ 추진경과

- 우리나라는 훈민정음(국보제70호), 조선왕조실록(국보제151호) 2건을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제3차회의('97. 9.29~10. 1)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함.
- ※ 현재 26개국에서 48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등록함.
(이번 청주 제5차 회의 등록 권고 의결된 세계기록유산은 제외)